

“AI전환 선도 프로젝트 300개 이상 추진”

산업부 25개 시범사업 내달 선정 프로젝트당 최대 100억 지원키로

정부가 인공지능(AI)의 산업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주요 제조·서비스업 분야에서 300개 이상의 ‘선도 프로젝트’를 지정해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 AI 전환 확산 정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고에서 ‘산업 AX(AI Transformation)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31% 수준인 기업의 AI 활용률을 70% 수준까지, 현재 5% 수준인 제조 현장 도입률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 AX는 계획, 개발, 생산, 판매 등 기업 활동 전반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개념이다.

산업부는 연구개발(R&D), 금융,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인 ‘AX 선도 프로젝트’ 지정을 통해 기업들이 산업 현장의 모범 AI 적용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계 전반 확산을 유도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내달까지 우선 25개 AX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각각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오는 2027년까지 이 같은 지원 대상을 총 300개 이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AI를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서두르고 있

다. 정부는 AX 선도 프로젝트 지정을 통해 이 같은 기업들의 AI 전환 노력이 한층 빨라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민간 합동 ‘AX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AI를 로보, 장비 등과 결합해 산업 현장의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얼라이언스에는 총 12개 업종에서 133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현대차·기아, 동서기공, 삼성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하나미이크론, 씨젠,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항공 등 분야의 대기업과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참여 기업 중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58%를 각각 차지한다. 참여 기업 전체 매출액을 합하면 국내 제조업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AI 자율 공장을 구축해 자동차 혼류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생산 공장의 모든 생산 요소를 데이터로 연결하고 이에 AI 기술을 적용해 시장 수요에 따른 유연한 자동차 생산, 새 모델 생산에 필요한 하드웨어 변경 등 준비 과정 최소화 등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AX 선도 프로젝트 지정과 더불어 산업부는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수요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소프트웨어(SW) 패키지 개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기업에 대한 인프라·금융 집중 지원 등을 포함하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플랫폼 중앙에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 제공 기업의 동의하에 기업 간 연결·공유만 지원함으로써 영업 비밀 이슈를 해결할 유럽연합(EU) 가이아-X(GAI A-X) 플랫폼을 벤치마킹해 한국 산업 실정에 적합한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배추 품질’ 배추 수급 문제가 지속되는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 배추 매대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광주조달청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 개최

혁신기업·수요기관 교류의 장 마련...시범구매사업 안내도

광주지방조달청은 26일 “정부광주 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조달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2024 하반기 광주전남지역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 지역의 혁신기업 10개 사와 16개 수요기관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제도 안내 및 혁신제품 홍보와 구매상담 등이 이뤄졌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조달청이 자체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도 수요처를 찾지 못해 시범구매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지역 내 혁신기업이 다수 존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상담이 이뤄진 혁신기업과 수요기관은 2025년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같이 참여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혁신제품 제도란 공공부문에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돼 기술혁신 및 초기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김종열 광주조달청장은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는 지역 중소기업과 수요기관 간 교류를 통한 상생·협력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한 우수한 지역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10월 종합경기 전망 31개월 연속 부진

한경협, BSI 전망치 96.2...수출은 전월 대비 반등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의 여파로 다음 달 국내 경기 전망도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0월 BSI 전망치가 96.2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BSI 전망치는 지난 2022년 4월 이후 31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며 기업 실적 악화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BSI 전망치는 각각 96.4와 96.0으로, 3개월간 동반 부진했다.

제조업은 7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했다. 비제조업도 3개월 연속 기준선에 못 미쳤다.

제조업 10개 분야 전망은 수출 분야에 따라 업종별로 엇갈렸다.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15.0), 비금속 소재 및 제품(107.1), 전자 및 통신장비(106.3),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105.4) 등 4개 업종은 호조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 및 통신 장비와 반도체 부품이 반영된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가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도 7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돌파하며 자동차 수출 실적 역시 반등할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이를 제외한 6개 업종은 업황 악화가 전망됐다.

의약품(75.0), 석유정제 및 화학(81.3), 식음료 및 담배(88.2), 목재·가구 및 종이(88.9),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90.0),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92.3) 순으로 전망이 어두웠다.

비제조업 업종 7개 중에서는 여가·숙박 및 외식(114.3), 전문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8.3), 전기·가스·수도(105.6)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연합뉴스

9월 동행축제, 내달 징검다리 연휴까지 연장

10월6일까지 1만5천여개사 참여...내수진작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6일 “10월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예정된 9월 동행축제를 10월6일까지 연장해 내수진작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석 연휴로 식품, 뷰티·헬스 등 명절 전후에

맞춰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할인행사를 선보였으며, 지난 24일 기준 온·오프라인 5천922억원의 직접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온누리상품권은 1조 3천333억원 판매됐다.

이번 연장 기간에는 성금 다가온 가을 시즌에 맞춰 육류·제철과일 등 고객들이 자주 찾는 식품류와 의류·침구류,

생활용품 등 계절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먼저 94개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1만5천여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한다.

쿠팡,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그림, 카카오 등 2개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라이브 특가, 쿠폰 발행 프로모션도 총 4회 추진한다.

연장 기간동안 광주충장 블랙프라이데이 등 전국 각지에서 18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함께 열리며 내수 활력 분위기 이어갈 예정이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황금연휴 특수효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장을 결정했다”며 “동행축제 연장이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YING

DRYING

DRYING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